



국내외 패키징 관련 교육 현황

The packaging science education at Home and Abroad

이명훈 /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소장

30여년전, 대학로에 자리잡은 포장대표기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들어서면, 영어로 커다랗게 “Better Packaging makes Better Living”이라고 씌여진 문구와 마주치게 된다.

오늘날, 지구촌을 꿰뚫는 주요 화두는 환경과 물류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포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30년 전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시대에 맞게 “Best Packaging makes Best Living”쯤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산업현장의 기술 발전에 걸맞게 포장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타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포장산업이 보조를 맞추지 못해 일정부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근본 이유를 살펴보면, 포장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알게 된다. 미국에서는 포장을 응용과학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이미 60여년 전에 대학에 관련학과를 설립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포장은 물건을 싸는 단순행위 정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포장교육의 역사가 짧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오늘날 기술수준 차이의 심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다행히도, 2000년대 들어서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정부에서 포장분야에 정책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 갈길이 먼 상황이다.

포장분야의 증흥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국내외의 포장교육에 대해 총체적으로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포장교육의 생성과정 및 현황

포장(패키징)은 인류의 태동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지내왔지만, 기술전수를 위한 교육이 시작된 지는 국내외로 100년 세월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40년의 포장교육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1970년부터 시작한 “포장관리사” 제도가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매년 1회씩, 약 40개 과목을 100여시간 동안의 강의를 통해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거쳐 포장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이 제도는 (사)한국포장협회의 포장기술관리사 제도로 아직까지 맥을 잇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에서 본격적인 포장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1993년도 동국전문대(현 경북과학대)에서 포장과가 설립된 이래 1995년도에 신성전문대(현 신성대), 2002년도에 연세대 원주캠퍼스, 2004년도에 용인송담대에 이르기까지 포장학과가 계속 설립되었다. 하지만 전문대에서의 포장교육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날 4년제 대학인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전문대에서는 거의 맥이 끊긴 상태이다. 한편, 포장교육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가 공인 포장기술 자격제도인 산업포장기사, 포장기사, 포장기술사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 후 취득하는 산업포장기사와 포장기사는 배출인원의 부족으로 아직 소수에 이르고 있는 반면, 가장 높은 수준인 포장기술사 자격증은 2008년말 기준으로 75명이 취득,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외 포장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포장교육을 이수하고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School of Packaging은 포장학 박사까지 배출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장 전문교육기관으로서 20여명의 국내 전문인력도 대부분 이곳 출신이다.

이 외에 몇시간 혹은 며칠간의 단기 포장교육은 포장기술사회, 포장기술인협의회, 패키징산업지원센터, 골판지공업협동조합 등에서 해당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장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점 분석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포장교육은 포장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포장산업에서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40, 50대의 포장전문인은 주로 실무현장에서 포장기술을 습득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물리, 화학 등을 전공한 이공계 대학 출신들로서 포장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포장은 재료학, 기법학,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 종합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기초교육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실무에 투입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어느 정도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포장관리 업무는 대개 제품 생산이라는 주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분야의 신입사원 교육에 많은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졸업전에 기업에서 인턴과정 등을 통하여 실무를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산·학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문대에서의 포장교육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포장이 가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된다. 포장전문인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된다.

한 부류는 자사 제품에 포장을 적용하는 사용자 군이고 또 한 부류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생산자 군이다. 포장재 생산업체가 영세성을 보이는 국내 산업 특성상 대부분의 포장전공 학생들은 사용자 기업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자 기업에서 일할 때 필요한 포장관리 기법은 대학에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으나, 포장설계 혹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포장재



료 특성, 원가 산출 등은 포장재 생산업체 현장이 아닌 강의실에서는 사실상 배우기 어렵다. 미국의 포장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업체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에서는 2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동안 포장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교육을 모두 이수하기가 어려웠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체의 맞춤형 교육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포장교육은 여러 가지 분야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필드 트레이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산·학 협력을 전제조건으로 두어야 한다. 현재, 4년제 정규대학 포장전공자가 적어도 천명 이상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지만, 1개 뿐인 대학의 졸업생들도 취업이 순조롭지 못한 현상은 산·학 협력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향후 비전

어느 분야이든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포장분야가 발전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권을 포함하여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각 지역별로 1개씩 최소한 4~5개의 4년제 대학 포장학과가 설립되어야 한다. 근래에는 식품산업 분야 이외에 환경, 물류정보, 농림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영역이 계속 열리고 있으며 포장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포장이 종합과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이렇게 새롭게 창출되는 분야에 적극 진출하여 관련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의 한 개 대학

만으로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로 신규 영역을 선점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다.

포장분야가 발전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전문인력의 선순환적인 life cycle 구축을 들 수 있다. 포장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여 전문가 수준에 이른 인력들이 조직에서 물러난 후 전문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포장 전문인력이 은퇴한 이후에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관련 산업에 전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전문가의 생계도 돕고 자국의 위상도 높이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분야에 투신하여 은퇴 이후도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동안 산발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장기술 지도를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포장기술지도 지원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구축하여야 하며 이는 정부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뭉치기도 하다. 국내 포장산업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려면 깊이 고려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포장분야가 살아나려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활성화와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고 대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와 같은 불황기가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적기이다. 또한, 지금이 포장분야 리더들이 만나 이 분야 발전을 위한 컨센서스를 도출할 시점이기도 하다. ☐